불교 문상의례 제각각… "표준안 필요"

표준안 필요성 대다수 공감, 세부절차엔 이견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문상의례 쟁점사항
- 영단에 올리는 절 횟수
- 재가불자 영단 절 여부
- 탈상 전후 영가의 위격

문상의례 공식 절차 없어
현장에서는 이현령비현령
유교문화 영향 무시 못해
"대중공의 담아 해결해야"

#비구 A스님은 지난해 어느 비구니 스님 장례에 문상을 갔다가 당황스런 경험을 했다. 비구니와 재가불자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어른스님 가르침을 되새겨 합장 저두례만 하고 나오는데 뒤이어 들어온 연배 높은 비구스님이 영단에 절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혹여나 절하지 않은 자신 때문에 상주가 불쾌하게 여기진 않을까 눈치가 보였다.

#재가불자 B씨는 도반의 장례에 문상을 가면서 영단에 절을 2번할지, 3번할지 수차례 고민한 적이 있다. 도반이 신심 깊은 불자인 점을 감안하면 3배가 맞을 것 같지만 유교문화가 짙은 우리나라 장례풍습을 감안하면 2배를 하는 게 무난할 것 같아서다. B씨는 공식화된 불교 문상의례 절차가 있으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불교계 내에서 표준화된 문상의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의 경우 중앙종회서 표준 문상의례에 대한 종책질의가 나오고, 대다수 스님들이 공감할 정도로 관심이 많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태원 스님은 최근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서 종책질의를 통해 "불교식 문상의례가 정착되지 않아 장례식장, 분향소 등에서 많은 혼선이 빚어져 진정한 종교적 위무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前종회의장인 성문 스님을 비롯해 많은 종회의원들이 공감을 표하며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태원 스님은 "문중, 사찰별로 의례가 달라 문상을 다닐 때마다 절을 몇 번 해야 하는지부터 위패 작성법의 차이 등 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종단차원의 표준 문상의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의례실무위원회는 매월 한 차례 회의를 열어 각종 의례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다만 표준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비해 세부절차에서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스님의 경우 문상 대상이 승가와 재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정도다. 특히 문상 대상이 스님일 때 가사 장삼을 갖추고 절을 올리는 것으로 논의 중이지만 2배와 3배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또 재가자 문상서는 합장, 저두례는 하지만 절은 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은 "표준안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표준안이 생기면 대중의 관념이나 인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스님들도 수륙재나 영산재에서 영단에 반드시 절을 한다. 단순히 재가자 문상이라는 이유로 스님이 절을 하지 않는 것은 애매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의례실무위원인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연구실장)은 〈범망경〉 보살계의 내용 등을 예로 들어 기준 설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스님은 "〈범망경〉은 대승경전이지만 '출가자는 임금 · 부모 · 친인척 · 귀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귀신에 망자를 포함할 것인가에 따라 재가자 영단에 대한 예가 바뀔 수 있다. 최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려다보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불교의 계율이 수범수제(隨犯隨制)이듯이 절대적 원칙은 없다. 이 시대 공의가 모여야 다수가 인정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기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문상의례의 세부절차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해석에 차이가 있어 의례실무위원회는 장기적인 공청회까지 염두에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개인이 문상 갔을 때의 약례와 단체의 광례로 나눠 구체적인 절차를 다듬는 한편, 망자에 대한 명칭을 탈상 이전 이후에 선엄부(先嚴父), 선자모(先慈母) 등으로 칭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또한 위격은 탈상 이전에 영가(靈駕), 탈상 이후에는 연위(蓮位)로 칭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한 논의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현장서 겪는 혼란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율장에 근거한 문상의례는 없을까.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덕문 스님은 "율장에 불탑이나 불당 앞으로 시신을 운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있지만 특별히 문상에 대한 내용을 찾기는 힘들다"며 "비구가 비구니 문상을 갔을 때 절을 하지 않더라도 정중하게 예를 표시할 수 있는 합의된 절차가 마련돼야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인연 연기 모든 현상 인연따라 生起

부처님이 최초로 발견
상의상관성 인과법칙
"연기보면 고집멸도 본다"

*인연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인연따라 생기소멸(生起消滅) 하니까요. 인연법을 바로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악연이 풀어집니다. 처처가 부처님 모습이고 자비입니다. 지옥도 극락이 됩니다. 이고득락(離苦得樂)입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인연(因緣) 연기(緣起)의 진리를 깨달아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의 부처를 이루셨습니다.

원인(因)과 조건(緣)의 상호관계에 의해 삼라만상이 생겨나는 인연생기(因緣生起)를 최초로 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연이고 연기입니다.

부처님은 만물이 생멸변화하는 법계에 상주하는 '존재의 법칙'이 있음을 깨달으신 겁니다.

바로 인연 연기의 이치인데요, 존재의 상호의존성 또는 인과(因果)의 법칙이 그 내용입니다.

*모든 현상은 인과 연이 화합하면 생기(生起)하고 인과 연이 흩어지면 소멸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도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잡아함경에 있는 연기의 기본공식입니다. 상의상관성(相依相關性)의 공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과 저것은 연기 관계(인과 관계)입니다.

인(因)이 연(緣)을 만나면 반드시 결과가 생깁니다. 이 '인연과'를 줄여서 인과라고 합니다.

인과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 다른 존재에 관여하게 됩니다.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들과 무한히 상호의존관계를 맺으면서 인연 연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은 둘이 아닙니다. 세상은 거대한 인연의 덩어리입니다.

*무명(無明)으로 말미암아 노사(老死)의 괴로움이 있게 되는 윤회과정을 12단계의 인과(因果)관계로 설명한 것이 12인연 즉 12연기설입니다.

연기의 이해를 돕기위해 설해진 12연기설은 탐진치 삼독의 뿌리인 무명에서 시작됩니다.

무명은 어리석음이며 번뇌의 근본으로 연기의 진리를 모르는 무지(無知)를 말합니다.

12연기는 무명이 있음으로 생과



제목 · 연기-지혜 그림 · 조향숙

노사가 있다는 순관(順觀)과, 무명이 멸하면 노사도 멸한다는 역관(逆觀)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고뇌가 일어나고 소멸하는 과정을 일러주는 12연기설을 꿰뚫어보면 존재의 실상을 보고 어리석음의 어둠을 밝힙니다. 무명이 멸하므로 온갖 괴로움이 소멸돼 집착할 대상이 없습니다.

인연연기는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불교의 근본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는 반드시 연기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 재활용 비닐폐기물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지나치게 편하려고 과용해서 생긴 비닐쓰레기 문제를 연기법으로 보면 악연을 선연으로 푸는 해법이 나옵니다.

모든 문제는 인과법으로 풀고, 무명이 지혜인 밝음(明)이 되고 빛(光)이 되도록 신구의 삼업(身口意 三業)을 청정히 닦읍시다. 그리고 행복의 씨앗을 심고 가꾸세요. 인연법을 보면 능히 부처님을 보며 고집멸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전법교화 매진 앞장"

조계종 첫 전법사 위촉

전법교화 활동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전법사가 위촉됐다. 조계종이 지난해 관련 제도를 신설한 이후 첫 위촉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4월 12일 직지사 만덕전서 2급 전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법사 위촉 대상은 4년간의 기본교육과정을 졸업하고 구족계를 받고 전법사 시험을 통과한 83명의 비구 · 비구니 스님이다.

위촉장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대신해 총무부장 정우 스님이 수여했으며, 비구 혜인 스님 · 비구니 법민 스님이 대표로 받았다. 전법사로 위촉받은 스님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도선언처럼 모든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전법교화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계종의 전법사 제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법원력을 실현할 스님들을 선발해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신성민 기자

"시대에 부응하는 정신적 리더 되겠다"

불교총지종, 제12대 종령 법공 대종사 추대법회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인선)은 4월 12일 서울 통리원 총지사 3층 대법당서 '제12대 종령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종령으로 추대된 법공 대종사〈사진〉는 취임법어를 통해 "한 종단의 종령이란 막중한 소임은 큰 지혜와 복덕을 겸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임을 알기에 더더욱 두렵고도 가시방석 같은 좌불안석이라 생각된다"며 "생각건대 우리 종단의 앞길에도 산재한 난제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이 시대에 부응하려면 무수히 많은 선택의 기로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종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책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피력했다.

이에 앞서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봉행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원종 종조님의 법통을 봉승해 밀법에 의지한 대승보살도의 역사적 실천을 영도할 법공 대종사님을 종령으로 받드는 성스러운 자리"라며 "법공 대종사는 일찍부터 진언 밀교에 뜻을 두고 총지종에 입교해 청정한 생활과 엄격한 의궤로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오묘하고 신비스런 밀법의 체득을 실천하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종회의장 수현 정사는 "법공 대종사님의 일생은 가히 용맹전진의 일생이었다. 철저하고 엄격한 계행이 수행 근본이라는 신념을 몸소 실천하시고, 철저한 진언 수행을 통해 종도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아온 분"이라며 "오늘 종령 추대를 통해 우리 총지종은 중생제도의 대서원을 실현하고, 세계 도처서 번뇌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세계 속의 총지종을 자리매김하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힘찬 어조로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현대불교신문사 박종수 사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1월 제139회 승단총회서 만장일치로 종령에 추대된 법공 대종사는 1943년 경북 포항서 출생했으며, 총기원년(1972년 1월 12일) 총지종에 입교 후 통리원 및 총지사 근무를 시작했다. 통리원장 직무대행과 통리원 재무부장과 총무부장, 학교법인 대동학원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이사,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이사장 등 종단의 주요 중책을 역임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 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4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